

4년만에 정상화 된 광주·전남 예비군훈련

예비군 훈련장 가보니

광주·전남을 14만명 훈련 참여
사격·화생방·전투 태세·만반
사고 예방 전투형 안경 지급도

코로나19로 중단 또는 축소된 광주·전남지역 예비군 훈련이 4년만에 정상적으로 실시됐다.

6일 제31보병사단에 따르면, 이날 380명의 예비군들이 광주 북구 예비군훈련장에서 올해 첫 예비군 훈련을 받았다. 약 3만명의 예비군이 살고 있는 북구는 광산구와 함께 광주에서 예비군이 가장 많은 지역이다.

오랜만의 소집훈련에 일부 예비군들은 훈련장 안에 들어서는 순간까지 사전에 공지된 지휘서신과 문자를 거듭 확인하는 모습이었다.

총 39개조로 나뉜 예비군 대부분은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목진지 전투 △사격 △화생방 △검문소 운영 등 4가지 훈련을 받았다.

목진지 전투훈련 때는 교관의 지시대로 진지 곳곳을 뛰어다니느라 땀을 흘리기도 했지만, 답답해하며 마스크를 벗는 사람



6일 광주 북구 예비군훈련장에서 예비역들이 목진지 전투 훈련 전 교관으로부터 주의사항을 듣고 있다.

은 거의 없었다.

훈련 내내 다소 심드렁한 표정을 짓던 이들도 사격 시간에는 바짝 긴장한 표정이었다. M16소총과 실탄 5개를 받아든 예비역들은 눈 보호를 위해 전투안경을 착용한 뒤 신호에 맞춰 총을 쏘았다.

4시간 동안 진행된 오전 훈련이 끝나자, 예비군들은 미리 신청한 도시락을 배부 받았다. 지난해 7000원이던 도시락 단가가 올해 8000원으로 올라, 보다 푸짐한 식사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는 게 군 관계자의 설명이다.

도시락을 신청하지 않은 이들은 따로 PX(군 매점)에 가서 빵이나 음료 등을 구입해 먹었다.

31사단은 이날부터 오는 11월30일까지 위임직장 예비군훈련장 등을 포함한 총 21개 부대에서 지역예비군 훈련을 실

시한다.올해만 14만여명이 광주·전남 지역 예비군 훈련에 참여한다. 2박3일간 진행되는 동원훈련(병력동원 소집훈련)은 내달 4일부터 12월8일까지다.

4년 만에 정상적으로 시행되는 예비군 훈련인 만큼, 31사단은 사전에 작계훈련 등을 통해 지휘관의 훈련 역량을 키우는 데 집중했다. 또 전시 임무와 작전 계획을 고려해 전시전환 절차, 부대 증편·창설 과정을 행동화 훈련으로 실시해 예비군들이 숙달할 수 있도록 동원예비군 훈련을 준비했다. 지역예비군의 작계훈련은 상급 부대와 연계하거나, 사·여단 자체적으로 국지도발 훈련과 연계해 실시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동원훈련에 사용되는 모든 개인화기(K2)에 힌지전방 고정장치를 부착해 안전사고를 예방했다. 혹시 모를 안면 부상을 방지하고자 전투형 안경을 전 인원에 지급하기도 했다.

사단 동원 참모인 채승석 중령은 “4년 만에 실시되는 예비군 훈련인 만큼 안전하고 성과있는 훈련을 위해 모든 장병 및 군무원이 최선을 다했다”며 “‘훈련 또 훈련’을 통해 정예 예비군을 육성하고, 굳건한 전투준비태세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글·사진·양기림 기자 lotus@jinilbo.com

카페홀더 10주년 “끝까지 함께 가겠습니다”

도가니 사건 인화학교 졸업생 운영 “광주 정신으로 연대해준 시민 덕”

“광주 시민들의 연대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의 10년도 함께하겠습니다.”

‘도가니 사건’이 발생했던 광주 인화학교 졸업생들이 운영하는 ‘카페홀더’가 문을 연 지 10년을 맞았다. 해당 사건의 공판 검사였던 임은정 검사와 대책위원회 대표로 활동했던 김용목 목사 등은 카페홀더를 찾아 인화학교 졸업생들의 앞날을 응원했다.

6일 광주 광산구청 1층에 자리한 카페홀더 앞의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였다. 카페홀더는 소셜·영화로 큰 화제가 된 ‘도가니 사

건’의 당사자인 청각장애인들이 직접 커피를 내리고 서빙을 하는 곳이다. 인화학교 폐쇄 이후 졸업생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세워진 이 카페는 올해로 개점 10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열었다.

행사에는 당시 공판 검사를 맡았던 임은정 검사와 카페홀더 대표인 김용목 목사, 민형배 국회의원 등이 참여해 도가니 사건 이후의 이야기를 나눴다.

사건 당시 성폭력 대책위원회 상임대표로 활동했던 김 목사는 “가해자 처벌, 인화학교 폐쇄 등 법적인 조치들이 끝난 후 인화학교를 다니던 청년들을 어떻게 우리 지역 사회 안에서 살아가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과제가 남았다. 이를 위해 2013년 카페홀더

를 개업했고, 벌써 10년이 됐다”면서 “앞으로도 시민들의 응원에 힘입어 더 발전해갈 것이라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검사의 증언을 통해 도가니 사건을 되짚어 보기도 했다. 임 검사는 당시 사건에 더욱 절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어렵게 입을 열었다.

임 검사는 “상사에게 ‘꽃뱀’이라는 소리도 들어보고, 성폭행도 당할 뻔한 경험이 있다. 이런 일을 겪은 직후에 도가니 사건을 맡아서 ‘성폭력이 곧 나의 일’이라는 생각에 더욱 절절함을 느꼈다”면서 “피해자들이 (장애가 있어) 말을 잘 못하고, 기억도 제대로 못 했다. 그들을 대신할 수 있는 건 검사인 나밖에 없다는 사명감으로 (사건



6일 오후 광주 광산구청 1층에서 ‘도가니 사건’이 발생한 인화학교 졸업생들이 운영하는 ‘카페홀더’ 10주년 행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시민들이 임은정 검사와 카페홀더를 응원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에) 절박하게 임했다”고 말했다.

이어 임 검사는 “도가니 사건 해결을 위해 끝까지 함께 목소리를 내줬던 광주 시민

들의 모습은 5·18 정신과도 맞물린다. 침묵을 강요당하면서도 끝까지 문제 제기를 하고 같이 손잡아 주는 광주의 정신은 ‘연대와 같다’고 말했다.

민형배 국회의원은 “지역사회의 연대와 헌신으로 만들어진 카페홀더는 시민들이 더 가꾸고 키워나가야 할 사회적 성장의 거점이다”며 시민들의 관심과 응원을 당부했다.

이날 임 검사와 민 의원은 일일 명예점장으로 나서 인화학교 졸업생 등과 함께 주문을 받고 서빙을 했다. 수화로 서로 소통하며 음료를 만드는 카페홀더 직원들의 능숙한 움직임에는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서기 위한 10여 년간의 지난한 시간이 녹아 있었다.

한편, 카페홀더는 10년 동안 다방면으로 카페 운영을 지원해 준 임 검사와 민 의원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글·사진·강주비 기자

www.왕인문화축제.kr

문화체육관광부 | 대한민국 대표 문화관광축제

2023 K-컬처의 시작, 왕인의 빛

영암왕인문화축제

Yeongam Wangin Culture Festival 2023

3. 30.(목)~4. 2.(일)
전남 영암군 왕인박사유적지 일원

개막행사 'K-컬처의 시작, 왕인의 빛' : 3. 30.(목) 19:00 / 왕인박사유적지 주무대

K-컬처, 왕인!

- 왕인 어린이 독서골든벨
- 왕인 천자로 월드
- 북카페 '왕인의 숲'
- 플로깅 역사투어 '왕인산보(散步)'
- 박사왕인 행차길놀이
- 외국인 미션투어 '헬로 왕인'
- 글로벌 왕인투어 '어서와~ 영암은 처음이지?'

K-웰니스, 영암

- 영암 전통 민속놀이
- 오감만족 힐링 체험
- 왕인의 숨결! 영암 문화 체험
- 구림벚꽃길 걷기대회
- 구림마을 자전거투어
- 구림마을 벚꽃여행
- 氣찬영암 관광투어
- 영암 푸드·쇼핑랜드

대표프로그램

테마파레이드
'K-레전드, 왕인의 귀환'
4. 2.(일)
14:00~15:30
상대포역사공원
→ 구림마을
→ 왕인박사유적지

야간문화행사

| | |
|--------------------------------|------------------------------|
| 3. 30.(목) 19:30~21:00 | 개막 특집방송 'K-트로트 콘서트' |
| 3. 31.(금) 19:00~21:00 | 국립공원월출산 생태탐방원 영암 유치기원 음악회 |
| 3. 31.(금)~4. 1.(토) 19:00~20:00 | 구림마을 달빛야행 |
| 4. 1.(토) 20:00~21:00 | 달빛 디제잉파티 新난파진가 |
| 4. 2.(일) 18:00~20:30 | 폐막행사 '구림의 밤' |
| 3. 30.(목)~4. 2.(일) | 왕인로 빛의 정원 빛을 품은 구림마을 |

영암군향토축제추진위원회 : 061)470-2346~50
영암군청 문화관광과 : 061)470-2259
영암군홈페이지 : www.yeongam.go.kr

www.왕인문화축제.kr 왕인문화TV
www.facebook.com/wanginfesta www.instagram.com/wanginfesta

주최 | 영암군 YEONGAM-GUN 주관 | 영암군향토축제추진위원회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전라남도 한국관광공사